



지역사회와 글로벌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고 전문인 육성

고구려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2015학년도 고구려대학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수시 1, 2차와 정시 1, 2차로 나뉜다. 고구려대학교의 수시와 정시모집은 각 학과별 모집단위로 실시된다.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시 1차를 모집한다. 2015학년도 모집인원은 신입생 총 977명으로 신입학생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학과는 올해 영유아보육복지

과, 청소년복지상담과가 새로이 추가되고 기존에 있던 자연과학계열(치위생과, 미용뷰티케어과, 커피외식창업복지학부) 공학계열(토목전공, 건축과), 인문사회계열(유아교육과, 항공관광학부, 사회복지과, 아동노인복지과, 다문화복지과, 평생교육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아동복지복지과), 예체능계열(공연예술복지학부, 운동복지스

포츠학부), 5개 학부 23개 학과이다. 지원서는 입학 홈페이지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하면 된다. 새로운 첫 대학 생활의 시작을 우리 고구려대학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함께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며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고구려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 김주희 기자

☞ 전형일정

전형구분	원서접수	최초 합격자		총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발표	등록
수시	1차	2014.09.03~2014.09.27	2014.12.7	2014.12.8~12.10	2014.12.7
	2차	2014.11.04~2014.11.18	까지	18:00까지	2014.12.7
정시	1차	2014.12.19~2015.01.02	2015.1.24	2015.1.26~1.28	2015.1.29~2.26
	2차	2015.02.10~2015.02.14	까지	2015.2.26	18:00까지

☞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학과명	모집 정원	정원내			정원의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독자특별 전형	전문대졸이상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저소득층	민학도 성인재직자	
자연과학	치위생과 ★	40	28	0	12	4	4	4	2	
	미용뷰티케어과	20	12	4	4	30	1	0	1	
	커피외식창업복지과	30	18	6	6	30	1	0	1	
공학	토목조경과	40	24	8	8	30	1	1	2	
	건축과	20	12	4	4	30	1	0	1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	64	38	13	13	6	0	0	0	
	의료관광복지과	20	12	4	4	30	1	0	1	
	사회복지과	80	30(주)	18	6	6	30	1	0	1
		50(야)	30	10	10	30	1	1	2	
	아동노인복지과	90	40(주)	24	8	8	30	1	1	2
		50(야)	30	10	10	30	1	1	2	
	다문화복지과	120	40(주)	24	8	8	30	1	1	2
		80(야)	48	16	16	30	2	2	4	
	평생교육복지과	80	40(주)	24	8	8	30	1	1	2
		40(야)	24	8	8	30	1	1	2	
사회복지상담과	88	48(주)	28	10	10	30	1	1	2	
	40(야)	24	8	8	30	1	1	2		
아동보육복지과	80	40(주)	24	8	8	30	1	1	2	
	40(야)	24	8	8	30	1	1	2		
청소년복지상담과 ※	75	30(주)	18	6	6	30	1	0	1	
	45(야)	27	9	9	30	1	1	2		
영유아보육복지과 ※	50	20(주)	12	4	4	30	1	0	1	
	30(야)	18	6	6	30	1	0	1		
예체능	공연예술 복지학부	40	공연치유전공	24	8	8	30	1	1	2
	실용음악전공									
	재활복지 스포츠학부	40	사회체육전공	24	8	8	30	1	1	2
	운동재활복지전공									
합계	977	589	188	200	700					

★ 3년제 ※ 신설했다

고구려대학교 '고등교육 직업 인증 평가 워크숍' 개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난달 24일 대학 소강당에서 전체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직업 인증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고등교육 직업 인증 평가위원장이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인 양한주 원장의 '교육환경변화와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고등교육 직업인증 평가 워크숍'에서는 1) 교육환경변화, 2) 기관평가인증제의 개관, 3) 기관평가인증제의 대응, 4)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요소, 5)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6) 기관평가인증 현황 및 성과, 7) 맺음말 등으로 구성되어 특강이 진행되었다.

'고등교육 직업인증 평가 워크숍'에서는 평가인증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고등교육 직업인증 평가 워크숍'에서는 '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들의 내용이 특강에서 제시되었다. 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들의 관계는 표와 같다.

이로써 고구려대학교 '고등교육 직업인증 평가 워크숍'에서는 고등교육 직업 인증 평가를 방향과 내용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진행되었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김주희 기자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중점대학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봉사중점대학 세계를 개척하는 글로벌명문대학

특성화 · 사회화 · 세계화

추구하는 인재상
전문 직업인 · 사회적 인재 · 창의적 인재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전문 직업인 양성 교육기관
고구려대학교

사설

안전(安全), 안정성(stability) 확립 필요

우리사회는 그동안 고도성장과 발전이라는 특성으로 특징 지워져 왔다. 최근에는 스마트(Smart)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사회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안전(安全)에 있어서만큼은 불안전(不安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전을 찾아볼 수 없는 안전불복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안전부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보다 심도 있게 안전의 문제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사회가 안전에 대한 확립과 원칙을 굳건히 하고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전적인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방하는 것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는 ① safety ② security ③ safely ④ secure ⑤ in safety 정도 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어 단어의 주요한 내용들은 ① 안전(safety)은 안전, 무사; 안전성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security(안전, 보안)의 주요 뜻은 안전, 무사(safety); 안전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전적인 뜻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들 단어들의 연관성과 주요특성들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안전무사 하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어의 주요 뜻에서 나오듯이 안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전을 기초로 하여 안정성(stability)으로 확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브래네니키는 안전성

(stability)에 대해서 "위험이나 고장이 생길 염려가 없는 성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전, 더 나아가 안전성의 문제는 바로 우리사회가 "위험이나 고장이 생길 염려가 없는 성질"의 상태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성과 이를 구축하는 사회적인 틀들이 위험이나 고장이 생길 염려가 없는 성질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안전에 대한 영어단어들의 살펴보면 연관되는 단어들로 등장하는 것이다. 위험이나 사고의 방지 장치나 안전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안정성을 사회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장치와 안전책 즉 안전대책이 확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과 안전성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틀을 잘 갖추어 놓는 방법과 이러한 사회적 틀이 유지 될 수 있는 원칙을 확고히 해두는 방법을 제시하여 볼 수 있다. 사회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비롯한 제도적 틀과 사회전반적인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하고 안전성을 유지시켜나가는 안전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시험기간의 연속, 공부 빼고 다즐겁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고집병이 돋는다. 공부 외에 모든 일들이 재밌어지고 자꾸만 다른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 책상 위에 놓인 전공 책은 보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고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았던 드라마는 왜이렇게 재밌는지 어 느새 한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린다. 이에 시험기간이 되면 달라지는 학생의 행동을 지켜봤다

오늘 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

고 김씨는 공부를 하기위해서 집을 찾았다. 책들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보니 책상위가 너무더러워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책상위에있는 옷들도, 시험기간만 되면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청소만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마음먹는다. 그러다보니 한시간이 흘렀고 다하고 책상에 앉았지만 조금만 쉬어야지 하다가 두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버리고 결국공부는 하나도 못한 채 하루가 흘러버렸다. 왜이렇게 공부는 싫고 다른것들만 생각나게 되는 것일까?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웹툰도 드라마 심지어 잠도 못이겨 내겠다. 그래도 포기하지않기로 하고다시 또 시험기간이 다가왔다이번엔 잘해보리라 마음을 다져본다.

/ 김주희 기자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랜더' 교수 초청 협동조합 특별강연 개최



지난 5월 16일 (금) 15:00-17:00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301-3호)에서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의 '랜더'교수 초청, 협동조합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날 특강은 우리대학 박상하 교수의 사회로 강사는 랜더 벨로키 멘디자발(Lander

BELOQUI MENDIZABAL) 교수로 특강주제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개 및 성공 비결에 대해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세계적 성공모델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선진 운영노

하우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협동조합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랜더 벨로키 멘디자발(Lander BELOQUI MENDIZABAL) 교수는 스페인 몬드라곤 경영대학원 학장(2005. 5-현재)으로 MIK(몬드라곤 조직관리 및 사회혁신 연구센터) 사무총장(2007. 7~2009. 5), 몬드라곤 대학 경영이사(1999. 9~2005. 5), 몬드라곤 대학 교수 및 연구원(1999. 4~2005. 5) 역임하였다.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 몬드라곤그룹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4개 단과대학, 학부생 3,100여명,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1,000여명이며 세계 58개국 100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하고 있다.

또한 몬드라곤 그룹(1956년 협동조합 설립)은 -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연 매출 30조 원, - 스페인 세계시열 7위, 금융, 제조, 유통, 교육, 연구, 지식서비스 부문 등 26개 회사로 구성돼 8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 전 세계에 생산 공장을 보유, 해고 없는 경영원칙을 고수로 경제 민주화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 김주희 기자

해외여행 도전, 카우치서핑

오늘날 한국인의 해외여행 누적인구는 1,400만을 넘어섰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5천만에서 조금 모자란 정도이므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의 변화, 해외여행을 통한 기분 전환 및 새로운 문화 체험 추구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여행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카우치 서핑을 통해 현지인 친구를 사귀고 그 집에서 무료로 숙박도 할 수 있다. 카우치 서핑은 카우치(couch)와 서핑(surfing)이 결합한 말로 소파를 찾는다는 의미인데, 현지 사람(couchsurfing host : 카우치 서핑 호스트)에게 여행자(couchsurfer : 카우치서퍼)가 무료 숙박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비영리 커뮤니티이다. 카우치 서핑 시스템은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찍고 오는 '관광'이 아닌 현지의 친구를 사귀고 그 나라를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지요. 카우치 서핑의 인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여행 책 목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카우치 서핑의 장점으로는 첫째,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숙박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호스트에게 초대받기 어렵다. 자신이 왜 카우치 서핑을 하고자 하는지, 당신과 내가 어떤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적어서 어렵게 좋은 호스트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둘째, 카우치 서핑 호스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래, 샤워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외국 호텔에서 빨래를 하려면 1kg당 4,000~7,000원가량의 세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현지인만 알고 있는 명소, 맛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 책에는 없는 현지인들만 아는 명소를 소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 있는 오래된 식당, 최신 유행하는 클럽, 야경을 보기 좋은 곳 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인 친구를 사귀 수 있습니다.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알게 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마음대로 집에 드나들기 어렵다. 호스트에 따라 여분의 열쇠를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열쇠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트가 직장인이거나 대략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6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시간에 주변을 관광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낮잠을 자고 싶거나 배낭에 있는 물건이 필요할 때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호스트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호스트는 저녁을 함께 먹기 원한다. 카우치 서핑에서 호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아주 좋아하지만 자신이 직접 여행할 여건이 아니기에 외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낮에 한참 돌아다니다 와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셋째, 독립된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카우치 서핑에서 호스트가 쓴 자신의 집에 대한 정보를 잘 읽어야 한다. 여행지는 대부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월급에서 사는 호스트들도 있다. 그럴 경우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잠을 잘 때 불편할 수 있다. 넷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드문 경우지만 우유에 잠드는 약을 넣은 뒤에 성폭행했다는 이야기, 아이패드와 고급 카메라 등을 도둑맞은 이야기 등의 나쁜 소식이 들리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김새가 느껴진다면 그 자리를 피할 것을 권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카우치 서핑에서 호스트의 정보와 여행객의 레퍼런스(reference)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호스트는 자신의 집에 침대가 몇 개, 소파가 몇 개, 지하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자세한 정보공개한다. 이미 그곳에 묵었던 여행객들이 남긴 레퍼런스가 있다면 집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둘째, 호스트가 남지라면 여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다.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의 수가 적지 않다. 그래서 여자 혼자 혹은 여자 둘이 여행한다면 가끔적이면 여성 호스트를 찾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호스트를 찾는 것이 좋다.

/ 김주희 기자

2014학년도 수습기자모집



기행문

중국을 다녀와서

치위생과 3학년 노선민



뜻밖에 좋은 기회로 중국에 가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 신나게 방방 뛰며 설레는 마음 가득 가지고 무안 공항으로 향했다. 생각 외로 무안국제공항에서 목적이인 창북 공항까지 가는 길은 너무 길고 지루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느라 벌써 일 주일이 흘러버린 것 같이 느껴졌다 저녁 늦게 도착하여 우리를 반겨준 것

은 푸르스름한 어두움. 간간히 보이는 불빛에서도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지친 몸을 버스에게 기대어 몇 시간을 달렸을까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섰다. 우리의 숙소인 강서사범대학교 전광관에 우리를 환영하는 화려하게 꾸며진 로비와 강렬한 빨강색 문구에 또 다시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다. 공산주의를 세우며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전쟁박물관 살았던 곳을 돌아보고, 기념품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어떤 돈이든 그가 그려있어서 중국 다니는 내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았다. 어느 곳을 움직이든 무안과 서울을 몇 번 오가는 듯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처음 머문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인구가 한국 인구를 넘는다는 사실에 거대한 중국대륙이 피부로 느껴져 소름 끼쳤다.

하루 휴스테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 파트너는 janus라는 모범적이게 생기고 조금 수줍은 타던 16살의 학생 이었다. 워낙 k-pop을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말도 곧 잘해서 간단한 단어로도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었다. 파트너가 간식을 많이 준비해주었는데 생달라리가 흔제 되어있거나, 생선 바삭 말려 개별 포장되거나, 같은 랍시, 감자 칩 이 여러 다른 맛에 조금 부담스러웠다. 같이 먹으며 인상 쓰다가 재밌는 맛에 웃어가며 간단히 요구하고 시내로 향했다. 그동안 계란을 부치는 게 아닌 튀기는 것 같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들이 불던 요리, 각종 특이한 향신료가 섞이고 기름이 동동떠다니는 음식에 지쳐 김치가 그리워질 때 쯤 패스트푸드에 그나마 한국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

즐거웠던 것은 신호등 초록불이 들어 왔을 때 거기사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듯 움직이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또 택시를 타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월드스타답게 싸이네 강남스타일을 틀어주셔서 신나게 얘기하며 갔다. 택시도 옛날 차같이 생기고 좁았다. 또 운전석과 뒷 자석 사이에 철장같이 가로막혀있지만 새로웠고 중국의 작은 모습이구나 하며 눈으로 즐겼다.

중국에서 학생들은 오직 검정머리 끈 으르만 묶어야 한다고 했다. 매니큐어도 안 되고 심지어 머리핀도 안 된다고 했다. 시내를 같이 돌아다녔을 때 조금 늦은 시간은 돌아다니본 적이 없다고 했다. 덕분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더 사소한 것에 같이 웃고 장난도 더 많이 칠 수 있었다. 한국 돌아와서 그 아이와 메일을 주고받았다. 내 선물을 잘 쓰고 있다고 세수하고 스킨로션도 바르지 않아 피부가 조금은 상했는데 지금은 피부를 관리하겠다고. 공부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나를 편하게 하고예쁘게 하는데 조금 투자를 하겠다고 소식을 전했다.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를 언니같이 따라주고 너무 고맙았다.

치과요를 사서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보고,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던 그 높은 곳에서 중국의 야경을 한눈으로 보고, 함께 온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그 친구들과 거대한 중국을 맘껏 즐기며 쌓은 정을 한국 가서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interview

고구려대학교 총학 MT 와 총학생회 출범식



2014년 03월 26일 수요일 우리 학교에서는 1박 2일로 MT를 갖는다. 2년 연속 화순 도곡 스파를 갔는데, 이번에는 화순 금호 리조트를 가게 되었다. 총학생회에서 3주전부터 준비를 하였다. 정책 국장은 이번엔티를 준비하면서, 학생회를 소개하는 출범식도 같이하여 UCC 동영상도 만들었다고 했다. 학생회는 매일 모여 어떻게 하면 더 작년부터 나올까 하며, 회의를 매일 하며 서로 토론하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며,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미있는지 확인을 했다.

이번을 준비하면서 회장님께서 "처음 기획 하게 된 행사인 만큼 잘하고 학생들에게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했다. 또한 복지국장은 "이번 엔티를 위해서 학생들과의 친목도 다지고 음식담당을 한 만큼 좋은 음식으로 선택했다." 라고 하였다. 현 학생들만 가서 총원 7명 정도가 함께 했고, 도착해서 짐 풀고 강당에서 여러 게임도하고, 강당에서 여러 게임도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조별로 만들어서

로 모르던 학우들이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녁에 학년들 끼리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함께했다. 학생들은 이번 MT를 통해서 서로 모르던 학우와 친해져서 좋다고 했으며, 서로 멀리서 온 만큼 친해지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주말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축제 때를 함께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박소영 기자

우리대학의 신선한 충격, 소원을 말 해봐 ~ 내게만 말해봐!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행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는 다가오는 엔티나, 축제 학교행사에 맞춰져서 학교 앞에 소원함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사연을 적어서 사연에 맞춰서 학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이다. 이번 엔티에서 소

개된 소원을 말해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ㅇㅇ씨는 치위생과 이며 무정에 관하여 당첨된 사람이다. 각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삼년동안 함께 했는데, 삼학년이 되고 이제 국 시 불 날이 머지않아 삼학년 동기들과 이미지 사진을 찍어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김ㅇㅇ씨는 아버지와 다툼이 있는 후 계속 얘기를 안하게 되었는데, 다가오는 아버지 생신날 화해도 하고 아버지에게 변변찮은 신발 하나 없어서 이 소원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치위생과 1학년 전체 아이스크림 사주라는 소원도 있었다. 이렇게 당첨된 소원은 사연으로 읽어주며 선물을 각자 증정한다. 정ㅇㅇ씨는 이렇게 우정 부분에서 당첨되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했고 김ㅇㅇ씨는 이번 기회로 아버지와 화해도 하고 더욱 더 돈독해진 부녀 사이가 되어서 좋다고 했다. 당신도 소원이 있는가? 그럼 다음 기회에 사연을 써봐! / 김주희 기자

우리대학 학과 소개

보건계열(3년제) | 치위생과 | Dept. of Dental Hygiene

치위생과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실무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 치의학에 관련된 기초과학, 예방교육 및 임상실습과 같은 다양한 교과목을 최첨단 기자재를

통해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실습 등으로 국가고시 합격률 100%와 취업률 100%를 지향한다.

치위생과는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미르치과병원 등과 산학협력 체결, 매년

치과위생사 선서식, 6.9 주간 구강보건행사, 구강보건학술제, 학술지 편찬 의료봉사 동아리 지역사회 봉사, 학교·기관 구강보건 교육 활동 실시하고 있다.

치위생과 취득자격증

치과위생사 국가면허증, 병원 코디네이터, 치과장비관리사, 치과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덴탈매니저 등

치위생과 졸업 후 진로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직 공무원, 국·공 시립병원, 학교구강보건실, 보건소, 보건진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 의무실, 학점은행제 또는 전공심화 과정 이수 후 4년제 학사학위 취득, 해외취업 등



나주 먹거리 볼거리 여행



주맛집 들어는 봤는가?
나주 하면 떠오르는 곰탕! 하안집이 가장 유명하다. 하루에 몇 천 그릇이 팔린다는 100년 전통 하안집을 추천한다. 글썽이도 나주 시내에 가게 되면 하안집은 꼭 들릴 정도로 나주 곰탕을 사랑하게 되었다. 촬영하러도 많이 찾아오는 소문난 하안집!! 정말 꼭 한번쯤은 가볼 만하다. 나주 곰탕으로 유명해진 시초가 이집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이 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위치는 나주 곰탕 골목 '금성관' 으로 가면 바로 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연탄 불고기 '송현 불고기' 이다. 예전에는 허름한 집이었는데, 동산대 앞으로 새롭게 이전 하였다. 한 접시 당 1인분으로 1인분씩 나온다. 구워져 나오는 연탄 불고기, 정말 군침 돌게 하는

맛이다. 사람들이 불리는 맛집으로 유명한 송현 불고기 벌써부터 가고 싶지 않은가?

나주 금성산 한수제 벚꽃 ~ 구경!!
다음은 나주 금성산 입구에 있는 한수제 벚꽃놀이를 추천한다. 나주 금성산 입구에는 봄이면 하늘하늘 날리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곳이 있다. 사진을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벚꽃 길을 따라 뒤로 가면 삼림욕장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다 친구들과 함께 연인도 함께 하면 더 좋은 꽃놀이 구경이 아닐까?

다음은 나주 유채 꽃으로 유명한! 나주 영산포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축제기간은 4.16~4.20일 까지였으며, 나주 영산포 일대 모두 노란 빛에 취해 물들어 있었다.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의 향연으로 눈이 활활해집니다. 가족끼리 오면 더 좋을 영산강 유채꽃! 구경 이번 봄에 구경 못했다면 내년 봄을 기대해도 좋다.



이 직업이 뜬다. 미래 유망직업

취업전망이 좋은 직업 베스트 20

연봉 4000

한국고용정보원

직업	연봉(만원)	전망(%)	만족도 (백운위 점수)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	4339	100.0	85
항공기 조종사	9183	97.2	86
선박교통 관제사	3773	96.7	73
심리학 연구원	3142	94.3	96
치과의사	8224	93.3	64
태양광발전연구 및 개발자	4054	90.0	90
임상심리사	3157	90.0	93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2677	90.0	83
관광통역 안내원	2555	90.0	78
사회복지사	2268	90.0	69
호텔관리자	5247	86.7	80
반도체공학 기술자	4091	86.7	80
항기치료사	2765	86.7	70
놀이치료사	2577	86.7	96
언어치료사	2472	86.7	68
음악치료사	2233	86.7	91
태양열연구 및 개발자	4306	85.6	91
컴퓨터프로그래머	3461	84.3	94
투자분석가	6326	83.3	83
금융자산운용가	5888	83.3	77

만 원 이상 직업 중 향후 전망에서는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와 항공기 조종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전망이 좋은 직업에는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해당 직업이 속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직종으로 종사자 수가 적어 직업계의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행 직무의 내용이 표준화돼있지 않으며, 진입을 위한 학력도 근무하는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생 직업은 해당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요구 조건도 정형화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기관별별 갭도 등도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이들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 진입에 따른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 없는 고소득 직업으로는 도선사(1억539만원), 철도 전동차기관사(5295만원), 교과관리자(4989만원), 방송 송출 장비기사(481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고 없어진다. 10년 뒤 지구에는 어떤 직업이 각광받을까.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의 도움을 받아 2025 유엔미래보고서에 나온 미래 유망 직업을 추려봤는데 미세조류전문, 날씨조절관리자,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오피스프로듀서 등이었다.

/박소영 기자

성년의 날을 맞이한 이들을 위한 향수추천

성년이 된 이들을 위한 '성년의 날' 선물 중 가장 대중적인것을 꼽으라하면 단연 향수가 아닐까? 성년이 된 이들에게 향수를 선물하는 의미는 성년이 된 첫 마음, 초심을 잊지말라는 의미이다. 그런 성년이 된 이들을 위한 향수로는 무엇이 좋을까?



-마르제이콥스 오 롤라-

오 롤라는 모 뷰티프로그래머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 1위로 선정된적이 있는 향수로 과일향으로 시작해서 플로랄향과 바닐라향으로 끝나기 때문에 밝고 귀여운 여자를 연상시키는 향수이므로 무거운 향을 싫어하는 여성들에게 제격이라할 수 있다.



-글로에 오드 퍼퓸-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플로랄 계열 향수로 첫향은 무거운듯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잔향이 은은하게 남아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여성스러움을 어필하고 싶은 이들이 쓰기 좋은 향수이다.



-불가리 블루 블루옴-

남자향수계의 부동의 1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향수이며 신선함과 원숙함을 대조적으로 섞어 여성으로 하여금 그 남자를 알고 싶게 만드는 향이다.



-버버리 워크엔드 포 맨-

여유를 담은 향수라는 별명을 얻은 향수로, 시트러스 계열의 남성향이며 밝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향이다. 처음은 과일향으로 시작해 마지막은 차분한 풀냄새로 끝나 이제 막 성년이된 남성들이 쓰기에 부담없는 향수가 아닐까 싶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2014년 5월 15일 우리 학교에서는 09시 30분 스승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치위생과 2학년이 주최가 되어 치위생과 전 학년이 415호 강의실에 모였다. 책상마다 다과와 음료수가 준비가 되었다. 먼저 학년 임원들과 2학년 학회와 2학년 과대와 부과대 3학년 과대와 부과대의 감사 영상이 나왔다. 그리고 1학년 과대의 감사의 글 낭독, 선물과 꽃 증정식, 교수님들의 감사인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감사인사에 박문숙 학과장님은 이번 행사에 너무 고맙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하셨다. 김가영 교수님은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하셨으며 교수님들 모두 학생들과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고 단체사진으로 행사는 종료되었다.

/김주희 기자

원고모집

여러분의 글,
학우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자유로운 글로 누구나 웃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주제 : 자유 글(시, 감상문, 수필, 논설문 등)



<독후감>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치위생과 3학년 김주희

내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신경숙의 책을 읽고 난후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되었다. 신경숙의 짧은 소설로 엄마를 부탁해 읽어서 기대가 되는 책이었다.

전체적으로 소소한 속에서 나오는 가슴이 따듯해지는 이야기 같았다.

이 책에는 26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언가 이 책은 나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엄마가 나에게 전하는 것만 같은 누구에게 속삭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part가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는 초승달에게, 반달에게, 보름달에게, 그믐달에게에서 느낀 좋은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내 느낀 점을 말해보려고 한다.

초승달에게-가 떠난 후 라는 내용이 내 마음을 찡하게 하였다.

엄마에 관련된 딸의 이야기인데, 웬지 엄마에게 '효도'라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내가 엄마에게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드리려는 것, 평소 내가 무심했던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면서, 항상 늘 잘해야 했던 나인데 왜 막상 엄마앞에선 항상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못한 딸이 되는 걸까? 라는 의문점과 함께 속상하다는 생각과 나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친구, 연인과의 같은 엄마 어찌면 나는 엄마를 다 알기보다는 그저 기대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내에 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내가 좋은 친구, 엄마의 관심사도 알고 좋은 딸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반달에게-우리가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인색하게 들린다. 무언인가 진실 됨이 없는 그런 말 같고, 잘 안 믿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할 때 들은 경우가 많은데, 무언가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만을 고려하는 요즘 현대사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이 예전과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다.

친구들과 시험 끝나고 만난다면 우리가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꼭 물어보고 싶다!

우리의 추억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날 것만 같아 설레인다.~!

보름달에게 내가 아이였을 때도 이것은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나타낸 소재인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생겼을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딱히 나는 약기를 배운 적도 운동을 배운 적도 없었다.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 또한 딱히 나에게 권유를 해주지 않았었다.

내가 딱 한번 배우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반대를 하셔서 심하게 갈등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고 헬로를 배우고 싶다고 매일매일 헬로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다. 그땐 왜 그리 헬로를 배우고 싶었던 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셔서 속상했던 기억이 강하게 났다. 살면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가족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다. 그때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 판단하시는 것도 싫었던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께 서운했던 것 중 하나라서 너무 많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그믐달에게 봄비 오시는 날

이 내용은 첫 소설을 읽자마자 내 마음에 딱 꽂혀버린 소설이다. 그런 날이 있다. 모든 것이 비 탓이라고 느껴지는 날, 혹은 눈 탓이라고, 다시 말 하면 그저 무슨 탓을 하고 싶은 날. 괜히 우중충한 날을 탓 하면서 하루하루의 컨디션을 날씨 때문처럼 했던 나의 행동과 이 내용 속에 있는 주인공과 내가 너무나도 판박이 같아서, 솔직히 놀랐다. 비 소리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왜 내가 축 쳐지는 것을 느끼면서 행동에 대해서 거침없고 내안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걸까?

냉철함을 잊지 않기로, 늘 한결 같기로, 했던 나의 다짐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찌된 지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하고 부정 대신에 긍정을 가지며, 절망 대신에 희망 우울한 날을 맑은 날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던 순간이다.

사는 하루하루 언제나 좋게 생각 하는 내가 되도록 하자.

오랜만에 읽은 독서였지만, 독후감을 쓰는 법을 까먹었지만, 나의 느낌 그대로를 쓰게 해준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요즘 시대에 느끼기 힘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나의 모든 주변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대학 새내기 패션 센스있는 아이템들을 알아보자!



교복을 벗어던지고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이 성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면서 설레임이 가득한 학교생활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풋풋한 캠퍼스룩에 대해서도



유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화이트 블라우스를 추천한다. 베이직 하면서 어떤 하의를 받쳐입고 어떤 아우터나 악세사리를 매치시켜도 센스 있고 무난하게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라이프 인데, 가장 흔하면서도 신입생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의상이기도 하다. 특히 경쾌한 느낌과 코디를 할 때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아직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을 매치하는 것도 좋다. 특히 가장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은 정당한 핏의 청바지를 톱업한 코디로써 트랜치코트와 매치시키면 특유의 모던함과 동시에 캐주얼스러운 느낌도 줄 수 있어 과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대학 새내기를 완성 시킬 수 있다. / 김주희 기자

길거리 설문조사 한번쯤 의심 해보자

새학기가 되면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심리테스트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했다면, 지금은 좀 더 관심을 끌만한 정보를 가지고 아로마 테스트 등으로 학생들을 유인한다.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은 틈날 때 마다 거리로 나간다.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설득할수록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가장 많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이 설문지이다. 주로 2인 1조로 활동하며 혼자 있는 학생을 노린다. 또한 개인 설문지와는 다르게 개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설문지는 꼭 한번의심을 해보길 바란다. 설마 거짓말이겠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이 기사를 쓰는 나 또한 별자리 운세를 봐준다면, 개



인정보를 가져가 한동안 시달리기 까지 했었다. 단체를 사칭하며 신뢰감을 준 후 종교 단체에 빠져 들게 한다. 오히려 순진한 사람이 빠져 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더 잘 빠져든다고 한다. 우리 모두 길거리 설문지, 한번쯤은 꼭 의심해보자! / 김주희 기자

2014년도 고구려대학교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는 오는 4월 9일에 본관 대강당에서 '제 10회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하였다.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은 학생들이 치위생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의식으로 이날은 김형배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2학년 학생 40여명이 참여하여 핀 수여, 촛불의식, 선서문 낭독, 축하영상 메시지 순으로 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선서식에 참여한 2학년 학생 박○○양은 "이번에 이렇게 선서식을 하고나니 예비치과위생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게되었고 임상실습에 나가서 학교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더욱 노력할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현직 보위교수들은 "예비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박소영 기자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



지난 5월 18일날 총장로 사거리에서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를 재현한 공연등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어 애도를 하였다. 한 시민은 "공연을 보는내내 과거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절실하게 와닿아 너무

다문화 가족과 함께 250m 대형 해초 김밥 만들기

지난 4월 26일 안도 해변공원 야외행사장에서 열린 250m 대형 해초 김밥 만들기에 참가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가 살고 있는 안도군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제 해조류 박람회 진행 하였다.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미역줄기, 다시마 등) 이용해서 완도 군민들과 함께 대형 해초 김밥을 만들었

다. 일반 김밥과 다르게 길이 250m로 된 대형 김밥을 한국인과 여러 나라에서 결혼이주한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대형 해초 김밥이 만들어졌다. 김밥 속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처럼 저희 다문화 가족들은 각자 고향 나라의 이상을 입고 김밥 만들기에 참가하였다. 그날은 바닷바람이 좀 쌀쌀해서 습기도 했지만, 가



고구려대학교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김형배 편집인 경주강길수
인쇄인 강정권 편집장 김주희

대표전화
전화 061-830-7431
E-mail: cskang@kgacr.ac.kr

기사제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사면 북암리 837-8번지
본관 400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